

성과 연령에 따른 죄책감 경향성과 공감 및 죄책감

한 세 영¹⁾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성과 연령에 따른 죄책감 경향성, 공감, 죄책감의 차이를 밝히고,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의 차이를 검증하며,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의 관계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대전시에서 표집된 359명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중학교 1, 2학년 청소년이며, 이들은 187명의 남아와 172명의 여아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여아는 남아보다 높은 죄책감과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및 정서적 공명을 보였으며, 아동은 청소년보다 높은 죄책감과 정서적 공명을 보였다. 둘째, 성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연구대상의 죄책감 경향성이 죄책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의 관계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는 여아와 아동에 한해서 유의하였으며, 공감의 하위요소별로는 관점수용과 정서적 공명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제어 : 죄책감 경향성, 공감, 죄책감

1)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E-mail : evenhow@chungbuk.ac.kr)

I. 서 론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 초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아동은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죄책감 및 공감과 같은 도덕적 정서가 발달하게 된다. 죄책감은 행동에 대한 후회나 양심의 가책에 해당하는 정서로, 잘못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이며 자신을 통제하여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정서(Tangney, 1995)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자의식적 정서(Kitayama, Markus, & Matsumoto, 1995, 신경일 1994에서 재인용)의 대표적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 죄책감과 함께 연구되어온 개념인 수치심이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인 것으로 여겨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인데 반해, 죄책감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긍정적인데 자신이 원하거나 믿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하는 후회와 가책을 갖는 것을 말한다(Fossum & Mason, 1986).

이러한 죄책감은 다면적인 특성이 있어 그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경우와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있으며 자아 전체에 대한 인식에 비중을 둔 경우와 구체적 행동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있다.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경우, 보상과 같은 긍정적 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친사회적 감정으로 정의되기도 하고(Hoffman, 2000),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오래도록 반성하고 책임을 크게 느끼는 반응으로 접근되기도 하였다

(Bybee & Queles, 1998; Ferguson, et al., 2000).

Ferguson과 Crowley(1997)는 다양한 죄책감의 형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척도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은 죄책감의 부정적인 측면인 후회나 가책의 감정에 있으며, 특히 이러한 감정이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정서반응인지, 또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정서반응인지를 구분하여 측정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죄책감에 대한 측정은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다. 전자는 자의식적 정서의 측면을 강조하여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으로서의 죄책감이다. 이는 스스로를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가 많고 늘 긴장하며 실수를 하면 괴로워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평소의 자의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접근의 죄책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전체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죄책감을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측정방법은 극히 소수의 학자(Tangney & Dearing, 2002)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져 왔다.

후자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죄책감으로, 대부분의 죄책감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따른다. 규칙위반, 행동문제, 또래공격 등의 영역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송수민, 2009; Silfver, et al., 2007). Lewis(1971) 또한 죄책감을 자신이 한 구체적 행동을 문제시한 것으로 구분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접근에 의해 측정된 죄책감은 죄책감 경향성(guilt-proneness)이라고 명명되거나

(Leith, 1998; 송수민, 2007) 또는 죄책감(guil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었으나(Silver, 2007; 김경희, 2002), 접근방법에 따라 두 용어가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고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죄책감 경향성으로 혼용되어 때로는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한 소수의 연구(Leith, 1998)의 연구에서는 각각 다른 두 개의 척도를 이용하여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죄책감 접근의 두 가지 방법 중 전자를 죄책감 경향성으로, 후자를 죄책감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죄책감의 근본적인 특성이 자의식적 정서라는 사실에 무게를 두어, 죄책감 경향성을 죄책감과 관련된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한다. 즉, 평소의 자신이 얼마나 후회가 많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의식의 큰 경향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면, 죄책감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후회나 가책으로 정의한다. 이는 자아에 대한 평소의 생각인 죄책감 경향성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개념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공감은 감정이입이라고도 불리며, 공감 연구 초기에는 주로 인지적 측면에서 접근이 되었지만 이후 정서적 측면이 주목을 받게 되어(Hoffman, 1998), 차츰 다차원적으로 접근되기 시작했다(Bohart & Greenberg, 1997). 신경일(1994)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공감을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한 바 있다.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 그리고 표현적 요소가 그것이다. 그중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는 아동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며, 표현적 요소는 인지

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작용하는 내적 과정이 일어났을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측면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적으로 표현되는 행동요소는 제외하고 우선 내적 과정인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공감의 인지적 요소에는 오래전부터 역할수용이나 관점수용 능력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아제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특성을 어린 아동의 자아중심성에서 비롯된 관점수용능력의 결핍으로 설명하였다. 즉, 어린 아동은 타인의 관점이나 생각을 추론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이나 감정을 타인의 그것으로 확장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아중심성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조망수용이라는 이름으로 분석되는 인지능력과 일맥상통한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 타인관점수용이나 역할수용의 한 가지 전제는 대상과 혼합되어서는 안 되고 자아와 객체의 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Feshbach, & Feshbach, 1982). 즉,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자아와 객체의 분화를 전제로 한 타인관점 수용능력이 핵심적이라 하겠다(신경일, 1994). 이런 점에서 공감은 자아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감의 정서적 요소에는 주로 정서의 공유를 통한 반응이 포함된다.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대상과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는 반응과 대상에 대한 동정이나 관심을 경험하는 반응이 있으며, 신경일(1994)은 이들을 각각 정서적 공명과 공감적 관심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살펴보

면 공감의 정서적 요소 또한 타인과 자신을 구분할 수 있는 자의식의 정서적 반응임을 전제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일(1994)의 연구를 참고하여, 공감의 두 가지 정서적 요소를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정서적 공명과 상대방을 동정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공감적 관심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수용으로 정의한다.

이처럼 자의식과 관련된 정서반응인 죄책감과 공감의 상관에 대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편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대체로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두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공감은 죄책감과 정적 상관을 이룬다고 하였다(Tangney, 1989; 서하나, 2008; 한세영, 2007).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죄책감과 공감의 관계에 주요한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아동의 다른 발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죄책감과 공감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두 변수의 상관을 발견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죄책감 정도에 따라 공감능력에 차이가 난다는 관점이다. 즉 죄책감이 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죄책감이 강한 경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피해 등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는 과정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과정이므로, 이에 따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공감능력도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죄책감 관련 훈련을 함으로써 이러한 방향과 일치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오경아, 2009; 장정희, 2008). 즉, 죄책감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전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죄책감 훈련을 하는 과정을 거쳐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다.

셋째, 공감의 정도에 따라 죄책감을 느낀다는 관점이 있다. 즉, 공감능력이 죄책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공감능력이 높은 아동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자신이 잘못된 일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과 피해 입은 상대방의 상처를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그에 따라 죄책감이 커진다는 것이 이 접근에 근거한 설명이라 할 수 있겠다. 죄책감은 잘못된 행동 뿐 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에 기인한다는 것을 규명한 한 연구(김경희, 2002)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Hoffman(2000) 또한 죄책감을 공감을 바탕으로 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위의 세 가지 가정은 아직 결론지어지지 않고 논쟁이 진행되는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접근들은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이란 용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으며, 분석된 죄책감의 범주도 사용한 측정도구에 따라 다양한 경향이 있다.

진행 중인 논쟁의 일부로, 또 하나의 연구(Leith et al., 1998)에서는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을 구분하여 공감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큰 모델 내에서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 및 공감의 한 요소인 관점수용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죄책감 경향성] → [관

점수용] → [죄책감]. 즉, 죄책감 경향성은 관점수용을 통해 죄책감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는데, 죄책감 경향성(guilt-proneness)을 죄책감을 갖는 개인의 특징(trait guilt)으로, 죄책감(situational guilt)을 죄책감을 느끼는 상태(state guilt)로 설명함으로써 죄책감을 가진 자아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가정과 그 방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죄책감 경향성, 공감, 죄책감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모델은 많은 연구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감 연구의 또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위에서 요약한 세 가지 관점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통합된 하나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을 구분하여 그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 맞물려 성립될 수 있는 가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죄책감을 2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여 공감과의 상관을 조사한 연구(Silver & Helkama, 2007)에서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죄책감 간의 상관보다도 각각의 공감과의 상관이 더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는 죄책감의 측정방법에 따라 죄책감의 개념이 달라지고 나아가 공감과의 상관관계가 달라짐을 증명하여 죄책감의 개념화와 측정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 연구의 세 가지 관점을 통합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죄책감 경향성이 공감을 통하여 죄책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Leith 등(1998)의 연구를 참고로 하며, 추가로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추론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Leith 등(1998)의 연구모형에서 죄책감 경향성이 죄책감에 선행하는 요인임을 밝혀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의 영향관계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의 개념을 평소의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주력하여 그 영향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즉,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그때마다 느끼는 정서가 평소의 자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평소의 인식이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Leith 등(1998)의 연구모형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죄책감을 느끼는 자아에 대한 정서반응인 죄책감 경향성은 구체적 행동에 대한 후회와 가책인 죄책감과 차이가 있으며,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가정한다. 또한 죄책감 경향성은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어 죄책감 경향성이 공감을 통하여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죄책감 경향성, 공감, 죄책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는 정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이 변수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자아탐색이 증가하고 사회적 관계가 중요해지는 아동후기와 청소년 초기의 발달에 대한 지식에 보탬이 될 것이다.

한편, 죄책감과 공감을 조사한 연구들은 성차와 연령차를 보고하였는데, 성차에 있어서는 대체로 남아보다 여아의 죄책감과 공감능력이 더 높고, 죄책감과 공감의 관련성도 더 크다고 한 연구가 많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아의 공감능력이 남아보다 높았으며(김성일, 1998), 규칙위반에 대한 죄책감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죄책감이 높았다(김경연, 하영희, 2003). Hoffman(1975; 1998)은 여아의 도덕적 내면화가 약하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일련의 연구를 통해 죄책감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여아가 남아보다 죄책감을 느끼는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성차에 대해 여아가 남아보다 확실하게 내면화된 도덕적 자기표준을 갖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었다(김경희, 2002). 반면, 죄책감과 공감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에 대한 관점수용의 예측력이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죄책감을 세분화하여 분석해보았을 때 남아는 부정행위에 대한 죄책감과 공감의 상관이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여아는 방관에 대한 죄책감과 공감의 상관이 더 크게 나타나 남아와 여아는 도덕성의 서로 다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였다(Silver & Helkama, 2007). 그러나 8-9세, 11-12세 남녀아를 비교해 본 결과 남녀아 모두의 죄책감이 공감과 정적상관을 보여 성차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Fraser & Strayer, 1997). 또한 Eisenberg, Zhon과 Koller(2001)은 남아의 도덕적 판단을 예측하는 것은 관점수용이나, 여아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인지향적 공감이라고 하여 남아가 좀 더 인지적 요소의 작용을 받으며, 여아는 다양한 정서반응이 필수적임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죄책감 측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죄책감을 세분화하여 영역

별로 살펴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성차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때로는 어떻게 세분화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을 자신이 후회하고 가책하는 성향이 있는지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죄책감 경향성과 다양한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정서적인 반응이 어떠한지를 묻는 죄책감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남녀아가 두 변수에 대해 각각 어떠한 성향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 두 변수가 공감과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성차를 보이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령차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중학생보다 죄책감과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난 연구(한세영, 2007)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죄책감이 높다고 한 연구(김경연, 하영희, 2003)가 있는 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포함한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서는 외적인 기준, 즉 별 지향에서 내면화된 도덕 표준으로 발달한다는 설명도 있었다(김경희, 2002). 8-9세 남아의 죄책감은 공감과 부적 상관을 보이지만 11-12세 남아의 죄책감은 공감과 정적 상관을 보여(Fraser & Strayer, 1997), 아동후기에서 청소년 초기까지의 시기가 죄책감과 공감이라는 도덕적 또는 자의식적 정서 간의 관계에 변화가 있는 시기임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보고들은 아동후기부터 청소년기까지가 도덕적 정서 및 자의식적 정서의 발달적 변화가 많은 시기이며, 그 발달적 변화는 영역별로 그리고 변수간의 관계별로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특히 공감의 매개효과에서 연령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죄책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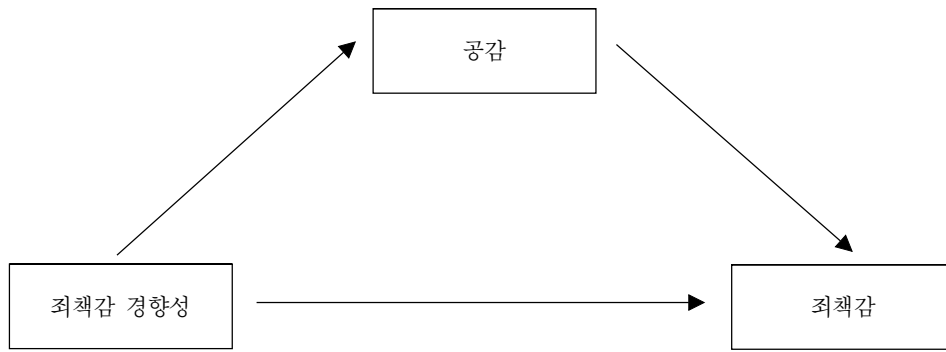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을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으로 구분하여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이 공감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연령별로 그 관계가 유사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성차와 연령차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도 연구모형을 성별, 연령별로 각각 적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죄책감 경향성, 공감, 죄책감은 성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 성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3) 성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죄책감 경향성은 공감을 매개로 하여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연구모형에서는 죄책감 경향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하며 죄책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감이 매개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전광역시의 1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를 통해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남학생 187명, 여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담임교사를 통해 배부되었고, 교실에서 약 20분에 걸쳐 작성한 뒤에 다시 회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은 아동으로, 중학교 1, 2학년은 청소년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0.19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8.04세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91명(27.5%)이었고, 대졸 이상이 240명(72.5%)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134명(40.4%), 대졸 이상이 198명(59.6%)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죄책감 경향성

죄책감은 자신에 대한 후회와 양심의 가책

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한 SSGS(State Shame and Guilt Scale) 척도(Tangney & Dearing, 2002) 중 죄책감의 영역에 해당하는 5문항을 아동학 연구자 2인이 국내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지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다음,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는 내가 한 실수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 “나는 후회하는 편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본 연구가 정의한 후회와 가책을 느끼는 자신의 평소의 성향에 대한 인식인 죄책감 경향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원칙도인 SSGS의 죄책감 영역의 신뢰도는 .82였고,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죄책감 경향성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감

공감은 타인의 정서적 상태나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Davis(1983), Mehrabian과 Epstein(1972)의 척도를 수정한 신경일(1994)의 척도를 수정하여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공감의 내용에는 관점 수용(3문항), 공감적 관심(4문항), 정서적 공명

(3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주위의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으면 내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화가 났을 때 잠시 동안이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식 4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이 높고,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공명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3이다.

죄책감

죄책감은 김정연과 하영희(2000)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정직한 행동을 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괴롭힘 행동을 하는 구체적인 가상 상황을 제시한 후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를 4점 likert 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만약 내가 친구의 도시락을 빼앗아 먹었다면, 나는...” “만약 내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용돈을 마련했다면, 나는...”, “만약 내가 숙제를 도와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모른 채 했다면, 나는...” 등의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죄책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1로 나타났다.

표 1. 각 변인들의 분포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공감	죄책감 경향성	359	2.39	.63
	죄책감	359	3.08	.65
	관점수용	359	2.62	.73
	공감적 관심	359	1.80	.69
	정서적 공명	359	2.65	.70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살펴본 각 변인들의 분포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제시된 평균은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각각의 문항 값으로 나눈 값의 평균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로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성에 따른 그리고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고,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paired-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죄책감 경향성, 공감과 죄책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죄책감 경향성을 독립변인으로, 죄책감을 종속변인으로,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 검증 절차를 사용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3단계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에서보다 3번째 단계에서 감소해야 한다.

III. 결과 및 해석

1. 성과 연령에 따른 죄책감 경향성, 공감과 죄책감의 차이

성에 따른 죄책감 경향성, 공감과 죄책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2). 성에 따라 죄책감($t=-5.15, p<.001$), 관점 수용($t=-3.75, p<.001$), 공감적 관심($t=6.09, p<.001$), 정서적 공명($t=-3.46, p<.001$)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죄책감, 관점 수용, 정서적 공명을 더 크게 지각하고, 남아는 여아보다 공감적 관심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죄책감경향성, 공감과 죄책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3), 아동이 청소년보다 죄책감($t=6.91, p<.001$)과 정서적 공명($t=-3.15, p<.001$)이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이 아동보다 공감적 관심($t=-.40, p<.001$)이 더 높게 나타났다.

2.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의 비교

아동과 청소년의 죄책감을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으로 비교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남아($t=-9.12, p<.001$)와 여아($t=-14.13, p<.001$)는 모두 죄책감 경향성보다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아동($t=-16.24, p<.001$)과 청소년($t=-6.25, p<.001$)은 죄책감 경향성보다 죄책감을 더 많이 느꼈다. 이를 통하여 남아와 여아, 아동과 청소년 모든 집단이 평소의 죄책감 경향성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죄책감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성에 따른 죄책감 경향성, 공감과 죄책감

종속변수	독립변수	성		<i>t</i>
		남아	여아	
죄책감 경향성	N	187	172	-1.50
	M(sd)	2.34(.59)	2.44(.67)	
죄책감	N	187	172	-5.15***
	M(sd)	2.91(.70)	3.26(.53)	
공감	관점수용	N	187	-3.75***
		M(sd)	2.48(.74)	
	공감적 관심	N	187	6.09***
		M(sd)	2.01(.73)	
	정서적 공명	N	187	-3.46***
		M(sd)	2.53(.77)	

****p* < .001

표 3. 연령에 따른 죄책감 경향성, 공감과 죄책감

종속변수	독립변수	연령		<i>t</i>
		아동 (초등 5, 6학년)	청소년 (중 1, 2학년)	
죄책감 경향성	N	225	134	1.80
	M(sd)	2.34(.62)	2.31(.64)	
죄책감	N	225	134	6.91***
	M(sd)	3.25(.54)	2.79(.71)	
공감	관점수용	N	225	1.64
		M(sd)	2.69(.74)	
	공감적 관심	N	225	-.40***
		M(sd)	1.79(.70)	
	정서적 공명	N	225	3.15***
		M(sd)	2.74(.69)	

****p* < .001

표 4.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의 비교

		N	M(SD)	paired - t
남아	죄책감 경향성	187	2.34(.59)	-9.12***
	죄책감	187	2.91(.70)	
여아	죄책감 경향성	172	2.44(.67)	-14.13***
	죄책감	172	3.26(.53)	
아동	죄책감 경향성	225	2.43(.62)	-16.24***
	죄책감	225	3.25(.54)	
청소년	죄책감 경향성	134	2.31(.64)	-6.25***
	죄책감	134	2.79(.71)	

*** $p < .001$

3. 성과 연령에 따른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하지 않았다. 성별, 연령별 상관분석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연구문제 3을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VIF 지수를 알아본 결과 1.01- 1.24 로 다중공선성이 심각

성에 따른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남아의 경우, 관점수용을 매개변인으로 한

표 5. 남아와 여아의 죄책감 경향성, 공감과 죄책감 간의 상관관계

		죄책감 경향성	죄책감	공감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
죄책감 경향성		--				
죄책감		.12 (.21)	--			
공감	관점 수용	.32*** (.23**)	.35*** (.32***)	--		
	공감적 관심	.22** (.03)	-.22** (-.28***)	.10 (-.14)	--	
	정서적	.40***	.43***	.51***	-.02	
	공명	(.44***)	(.35***)	(.25***)	(-.17*)	--

* $p < .05$, ** $p < .01$, *** $p < .001$

남(여)

표 6. 아동과 청소년의 죄책감 경향성, 공감과 죄책감 간의 상관관계

	죄책감 경향성	죄책감	공감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
죄책감 경향성	--				
죄책감	.16* (.13)	--			
관점	.22*** (.38**)	.40*** (.32***)	--		
수용					
공감적	.08 (.16)	-.42*** (-.17*)	-.22*** (.23***)	--	
관심					
정서적	.36*** (.48***)	.47*** (.33***)	.31*** (.61***)	-.28*** (.15*)	--
공명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청소년)

모델 1, 공감적 관심을 매개변인으로 한 모델 2, 정서적 공명을 매개변인으로 한 모델 3에서 모두 1단계에서 죄책감 경향성이 매개변인인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beta=.32$, $p<.001$; $\beta=.22$, $p<.01$; $\beta=.40$, $p<.001$), 2단계에서 독립

표 7. 죄책감 경향성이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남아)

모델	단계		β	R ²	
1	1단계(독립변인→매개변인)	죄책감 경향성→관점수용	.32***	.10	21.19***
	2단계(독립변인→종속변인)	죄책감 경향성→죄책감	.12	.02	2.85
	3단계(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1) 관점수용→죄책감	.34***	.12	12.60***
		2) 죄책감 경향성→죄책감	.01		
2	1단계(독립변인→매개변인)	죄책감 경향성→공감적 관심	.22**	.05	9.55**
	2단계(독립변인→종속변인)	죄책감 경향성→죄책감	.12	.02	2.85
	3단계(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1) 공감적 관심→죄책감	-.26***	.08	8.11***
		2) 죄책감 경향성→죄책감	.18*		
3	1단계(독립변인→매개변인)	죄책감 경향성→정서적 공명	.40***	.16	34.71***
	2단계(독립변인→종속변인)	죄책감 경향성→죄책감	.12	.02	2.85
	3단계(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1) 정서적 공명→죄책감	.45***	.19	21.32***
		2) 죄책감 경향성→죄책감	-.06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죄책감 경향성이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여아)

모델	단계		β	R^2	F
1	1단계(독립변인→매개변인)	죄책감 경향성→관점수용	.23***	.05	9.27**
	2단계(독립변인→종속변인)	죄책감 경향성→죄책감	.21**	.05	8.01**
	3단계(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1) 관점수용→죄책감 2) 죄책감 경향성→죄책감	.29*** .15*	.12	11.80***
2	1단계(독립변인→매개변인)	죄책감 경향성→공감적 관심	.03	.01	.18
	2단계(독립변인→종속변인)	죄책감 경향성→죄책감	.21**	.05	8.01**
	3단계(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1) 공감적 관심→죄책감 2) 죄책감 경향성→죄책감	-.28*** .22**	.13	12.09**
3	1단계(독립변인→매개변인)	죄책감 경향성→정서적 공명	.44***	.19	40.09***
	2단계(독립변인→종속변인)	죄책감 경향성→죄책감	.21**	.05	8.01**
	3단계(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1) 정서적 공명→죄책감 2) 죄책감 경향성→죄책감	.32*** .07	.13	12.22**

* $p < .05$, ** $p < .01$, *** $p < .001$

변인인 죄책감 경향성이 종속변인인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beta=.12$, $p > .05$)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관점수용을 매개변인으로 한 모델 1을 살펴보면(표 2), 1단계에서 죄책감 경향성이 매개변인인 관점수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23$, $p < .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죄책감 경향성이 종속변인인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21$, $p < .01$).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관점수용이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beta=.29$, $p < .05$), 죄책감 경향성이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에 비해 감소하였다($\beta=.15$, $p < .05$). 그러므로 여아의 죄책감 경향성은 관점수용을 매개로 해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설명력은 5%에서 12%로 증가하였다. 검증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공감적 관심을 매개변인으로 한 모델 2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 죄책감 경향성과 매개변인인 공감적 관심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를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공명을 매개변인으로 한 모델 3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죄책감 경향성이 매개변인인 정서적 공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44$, $p < .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죄책감 경향성이 종속변인인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21$, $p < .01$).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정서적 공명이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beta=.32$, $p < .001$), 2단계에서 유의했던 죄책감 경향성이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졌다($\beta=.07$, $p > .05$). 그러므로 여아의 죄책감 경향성은 정서적 공명을 매개로 해서 죄책감에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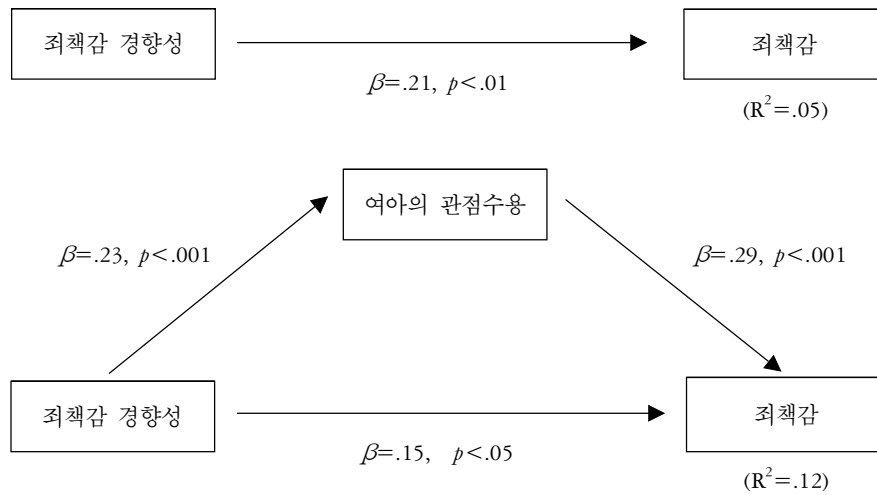


그림 2.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 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수용의 매개모형(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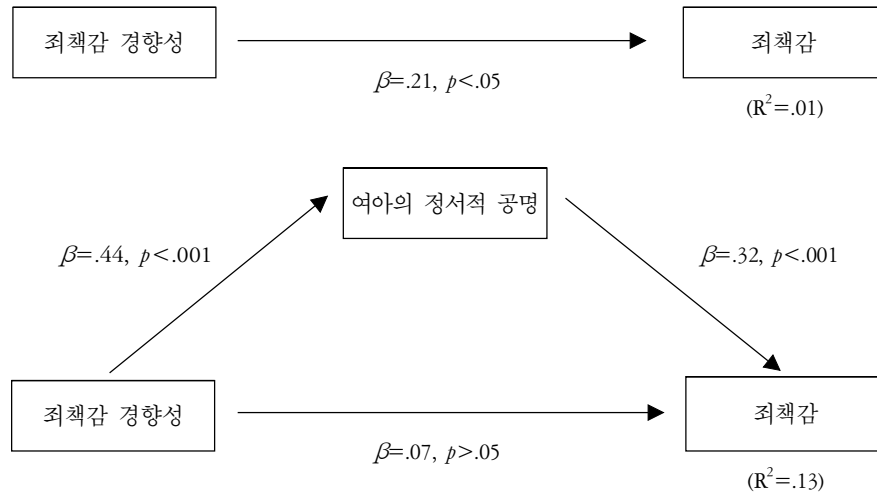


그림 3.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 간의 관계에 대한 정서적 공명의 매개모형(여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설명력도 1%에서 13%로 증가하였다. 검증모형은 그림 3과 같다.

연령에 따른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의 경우, 관점수용을 매개변인으로 한

모델 1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죄책감 n경향성이 매개변인인 관점수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22,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죄책감 경향성이 종속변인인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17, p<.05$).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관점수용이

표 9. 죄책감 경향성이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아동)

모델	단계		β	R^2	F
1	1단계(독립변인→매개변인)	죄책감경향성→관점수용	.22***	.05	11.19***
	2단계(독립변인→종속변인)	죄책감경향성→죄책감	.17*	.03	6.31*
	3단계(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1) 관점수용→죄책감 2) 죄책감경향성→죄책감	.39*** .08	.16	21.66***
2	1단계(독립변인→매개변인)	죄책감경향성→공감적관심	.08	.01	1.25
	2단계(독립변인→종속변인)	죄책감경향성→죄책감	.17*	.03	6.31*
	3단계(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1) 공감적관심→죄책감 2) 죄책감경향성→죄책감	-.44*** .20***	.22	31.00***
3	1단계(독립변인→매개변인)	죄책감경향성→정서적공명	.36***	.13	33.98***
	2단계(독립변인→종속변인)	죄책감경향성→죄책감	.17*	.03	6.31*
	3단계(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1) 정서적공명→죄책감 2) 죄책감경향성→죄책감	.47*** -.01	.22	30.73***

* $p < .05$, *** $p < .001$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beta=.39$, $p<.05$), 2단계에서 유의했던 죄책감 경향성이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졌다($\beta=.08$, $p>.05$). 그러므로 아동의 죄책감 경향성은 관점수용을 매개로 해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설명력은 3%에서 16%로 증가하였다. 검증모형은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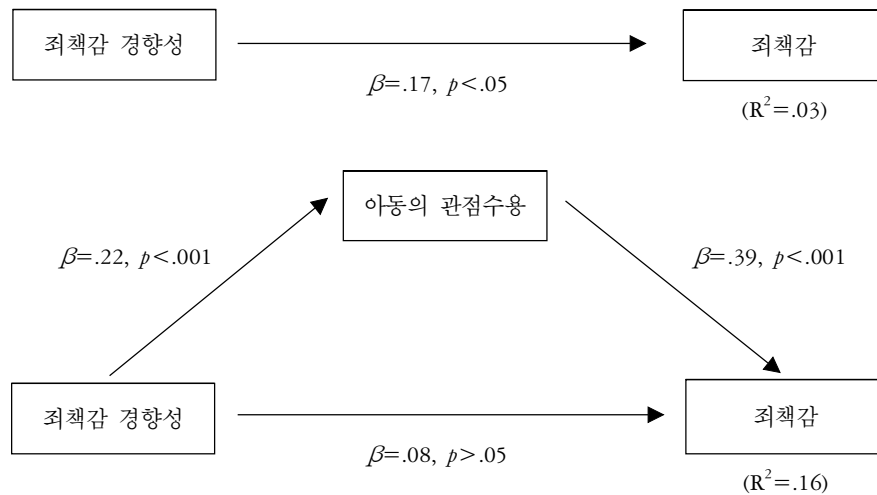


그림 4.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 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수용의 매개모형(아동)

<표 10> 죄책감 경향성이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청소년)

모델	단계		β	R^2	F
1	1 단계(독립변인 → 매개변인)	죄책감 경향성 → 관점수용	.38***	.14	21.63***
	2 단계(독립변인 → 종속변인)	죄책감 경향성 → 죄책감	.13	.02	2.42
	3 단계(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관점수용 → 죄책감 2) 죄책감 경향성 → 죄책감	.32*** .02	.11	7.65***
2	1 단계(독립변인 → 매개변인)	죄책감 경향성 → 공감적 관심	.16**	.03	3.41**
	2 단계(독립변인 → 종속변인)	죄책감 경향성 → 죄책감	.13	.02	2.42
	3 단계(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공감적관심 → 죄책감 2) 죄책감 경향성 → 죄책감	-.20*** .17	.06	4.02***
3	1 단계(독립변인 → 매개변인)	죄책감 경향성 → 정서적 공명	.48***	.23	38.53***
	2 단계(독립변인 → 종속변인)	죄책감 경향성 → 죄책감	.13	.02	2.42
	3 단계(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정서적 공명 → 죄책감 2) 죄책감 경향성 → 죄책감	.34*** -.03	.11	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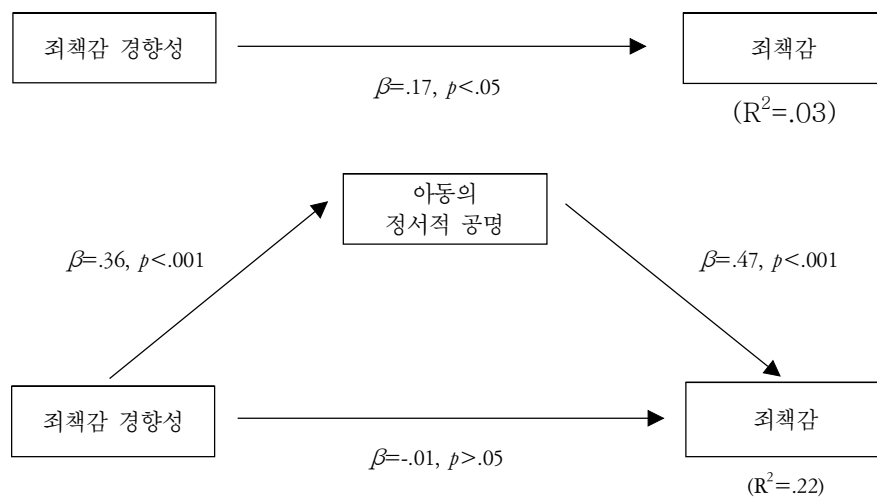
** $p < .01$, *** $p < .001$ 

그림 5.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 간의 관계에 대한 정서적 공명의 매개모형(아동)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 죄책감 경향성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 매개변인인 공감적 관심의 관계가 통계적 정서적 공명을 매개변인으로 한 모델 3을
으로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를 설명할 수 없 살펴보면, 1단계에서 죄책감 경향성이 매개변

인인 정서적 공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36,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죄책감 경향성이 종속변인인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17, p<.05$).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적 공명이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beta=.47, p<.001$), 2단계에서 유의했던 죄책감 경향성이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졌다($\beta=-.01, p>.05$). 그러므로 청소년의 죄책감 경향성은 정서적 공명을 매개로 해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설명력도 3%에서 22%로 증가하였다. 검증모형은 그림 5와 같다.

청소년의 경우, 관점수용을 매개변인으로 한 모델 1, 공감적 관심을 매개변인으로 한 모델 2, 정서적 공명을 매개변인으로 한 모델 3에서 모두 1단계의 죄책감 경향성이 매개변인인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beta=.38, p<.001$; $\beta=.16, p<.01$; $\beta=.48,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죄책감 경향성이 종속변인인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beta=.13, p>.05$)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별 그리고 연령에 따라 죄책감 경향성, 공감과 죄책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아동의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 간에는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의 관계에 대해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죄책감 경향성, 공감과 죄책감의 관계를

이해하고 교육현장에서 아동의 자의식적 정서를 이해하고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성 그리고 연령에 따른 죄책감 경향성, 공감 및 죄책감의 차이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죄책감 경향성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죄책감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죄책감을 여아가 남아보다 더 크게 지각한다는 김경연과 하영희(2003)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그러나 죄책감 경향성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죄책감 경향성이 구체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구분된 개념임을 유추하게 해준다. 즉, 남아와 여아 모두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죄책감 경향성을 발달시켜 스스로에 대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 내면화된 정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적용하여 판단하게 될 때, 즉 내면화한 기준대로 현실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는데 실패했다고 여길 때 나타나는 정서반응은 여아가 좀 더 강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확실하게 내면화된 도덕적 자기표준을 갖는다고 설명한 김경희(2002)의 보고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공감 중 관점수용과 정서적 공명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았고, 공감적 관심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상대방의 시각을 이해하는 관점수용과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정

서적 공명에서 여아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상대방에 대한 동정이나 관심 정도를 나타내어 정서적 요소로서 자아와 객체간의 거리감이 조금 더 있는 공감적 관심에서는 남아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여아가 남아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자신을 투영해 보는 감각이 더 뛰어나고, 남이는 객체로서의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성향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는 초기 청소년인 중학생의 공감능력이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높게 나타난다고 한 김성일(1998)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공감을 세분화하지 않고 성차를 검증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공감을 공감적 관심 및 다른 하위변인으로 나누어 성차를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아 남아가 공감적 관심에서 여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본 연구결과는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세분화하여 각 요소별로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령에 따른 차이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아동이 청소년보다 죄책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행위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죄책감이 작다고 한 Williams와 Bybee(1994)의 주장과 함께 고려해보면, 구체화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은 청소년이 아동보다 더 작은 것으로 보여지며, 죄책감의 발달에 있어 죄책감의 대상이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서 외적-벌 지향에서 내면화된 도덕 표준으로 발달한다는 점을 발견한 김경희(2002)의 연구결과

에 비추어 볼 때, 죄책감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연령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 후기의 죄책감이 초기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 지각만을 측정하여 죄책감의 내면화 과정을 알 수 없으므로, 어린 아동이 지각한 높은 죄책감이 과연 내면화된 도덕규준 만에 의한 것인지 또는 규칙위반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외적 제재를 의식했기 때문인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외적 제재를 의식해 후회하고 가책을 느꼈다면, 이는 죄책감이 더 낮게 나타난 청소년보다 도덕적 수준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층적으로 죄책감 수준을 파악하여 연령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외적 통제에 의한 죄책감 지각인지, 내적 통제로 전환된 죄책감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동이 청소년보다 정서적 공명이 높게 나타났고 공감적 관심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로 보여지며, 학업부담이 큰 국내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학교 진학 후 과중해진 학습환경으로 인해 타인의 감정을 공유할 여유가 줄어든 탓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학생의 공감적 관심이 아동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또래관계의 확장과 더불어 정서적으로 자신을 투영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보이는 관심만이 증가한 탓으로 사료된다.

2.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의 차이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의 차이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죄책감 경향성보다 죄책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여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의 차이는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서 나타났는데, 역시 죄책감 경향성보다는 죄책감이 컸으며, 그 차이는 아동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죄책감 경향성 및 죄책감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문제를 상기시키는 결과로, 모든 집단에서 평소 스스로에 대해 잘못된 일을 후회하고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상 보다는 구체적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강도가 훨씬 큰 것이다. 두 측정방법 모두 자의식적 정서인 죄책감을 측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서의 구체적 행동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성에 따른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 간의 관계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 간의 관계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성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남아의 공감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모두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남아의 경우, 죄책감 경향성이 죄책감을 설명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여아의 죄책감 경향성이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다른 결과로, 남아는 평소에 자신이 한 행

동을 후회하는 성향이 있느냐의 여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후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확실하게 내면화된 도덕적 자기표준을 갖지 못한다는 김경희(2002)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여아와 달리 남아는 잘못된 일에 대해 자책하는 성향이 있다는 자아상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내면화시켜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후회나 가책으로 연결시키는 성향이 적다는 것이다. 죄책감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남아에게 추상적 또는 철학적 죄책감의 개념을 학습시키기 보다는 가진 죄책감의 개념을 내면화하여 구체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 결과는 죄책감을 측정하는 방법 즉, 척도개발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전체적인 자아상과 관련된 죄책감 경향성과 구체적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서로 다른 척도로 측정되어야 하는 개념임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죄책감의 척도는 구체적 행동을 가상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죄책감을 묻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어떠한지는 향후 후속연구에서 다는 조사될 필요가 있다. 죄책감 경향성과 구체적인 가상 상황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나아가 실제행동을 하고 난 후에 지각하는 죄책감에 대한 측정방법이 국내문화에 맞게끔, 그리고 성별 차이에 맞게끔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비록 남아의 매개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매개모형의 부분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죄책감 경향성이 관점수용, 공

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고,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이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아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못했지만, 남아의 도덕적 정서인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이 공감과 함께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반면, 여아의 경우 공감 중 관점수용과 정서적 공명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우선, 죄책감 경향성이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으며, 이는 여아는 남아와 달리 평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자의식이 구체적 행동에 대한 후회와 자책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또한 죄책감 경향성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는 자의식이므로 겸허하게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상의 정서를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그러한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수가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게 된 여아는 구체적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더욱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Lieth 등(1998)이 제시한 가설적 행동에 대한 죄책감 경향성이 관점수용을 통해 구체적 상황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델과 같은 방향의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아의 공감적 관심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지 못했는데, 이는 공감적 관심과 같이 대상에 대한 동정이나 관심은 스스로의 행동이나 모습에 대해 후회와 책망을 하는 죄

책감 경향성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을 알려준 결과이다. 죄책감 경향성이 자신의 모습이나 행동에 대해 갖는 인식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의식적 정서는 공감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대상의 정서에 자신을 투영하여 대상과 같은 정서를 느끼게 되는 정서적 공명과 같은 영역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다. 공감적 관심은 여아 뿐 아니라 남아, 아동, 청소년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 모두, 죄책감 경향성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있어 정서적 공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가장 컸으며,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순이었다. 공감이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정서적 공명이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가장 컸고, 다음은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순이었다. 이는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이 공감의 인지적 요소인 관점수용보다는 정서적 요소인 정서적 공명에 더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주는 결과이다. 죄책감 경향성은 죄책감보다 좀 더 자의식의 원형에 가까운 개념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므로 자신을 낮추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의 정서를 배려하고 수용하고 고려하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죄책감 경향성은 잘못을 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서이며, 굳이 수치심과 구분하자면 나는 원래 무기력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의식인 수치심과 달리 죄책감은 나도 잘못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죄책감 경향성은 그와 같은 자의식의 경향성으로 평소에 자신이 실수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처받거나 실수하는 타인의 입장을 수용하기 쉽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Leith 와 Baumeister(1998)가 죄책감은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고 주장한 바와 맥을 같이 한다.

4. 연령에 따른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 간의 관계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 간의 관계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연령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아동의 경우, 관점수용과 정서적 공명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청소년 집단에서는 공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이 모두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는 청소년의 죄책감 경향성이 죄책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죄책감 경향성이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에 미치는 영향과 관점수용, 공감적 관심, 정서적 공명이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이는 11-12세 남아의 죄책감이 공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던 Fraser와 Strayer(199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앞서 나타난 남아의 매개효과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도덕적 규준의 내면화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지 않고 아동후기에서 청소년 초기로 전환된 시점에 죄책감 경향성을 내면화시켜 구체적 사례에 부딪혔을 때의 죄책감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감소한 것은 특기할 만한 현상이다. 이는 청소년 초기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 시기의 특성상 자

아정체감을 탐색하기 시작하나 아직 정립하지 못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아에 대한 인식이 일관되지 못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초등학교시기에 비해 변화한 또래문화와 학교문화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즉, 또래집단의 일탈이 증가하고 일탈의 기회가 많아져 청소년들이 아동보다 일탈에 익숙해진 결과 사소한 규칙위반이나 문제행동에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한 반해 아동은 상대적으로 자아정체감 탐색이 본격화되지 않고 또래문화도 안정적인 편이므로 죄책감 경향성이 구체적 상황을 만났을 때 그대로 죄책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의 경우, 청소년과는 달리 죄책감 경향성이 관점수용이나 정서적 공명에 미친 영향력 보다 관점수용이나 정서적 공명이 죄책감에 미친 영향력의 크기가 더 크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이는 비록 매개효과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보인 청소년 모델에서 죄책감 경향성이 관점수용이나 정서적 공명에 미친 영향력이 관점수용이나 정서적 공명이 죄책감에 미친 영향력의 크기가 더 큰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즉, 아동의 공감능력은 추상적 개념에 가까운 죄책감 경향성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느끼는 죄책감에 더 큰 상관을 보이는 것이다. 인지적으로 추상적 관념보다 구체적 현상에 더 잘 적응하는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의 개념을 구분하여 측정하여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성별, 연령별로 죄책감 경향

성, 공감, 죄책감에 차이가 있음도 밝혔다. 여아와 아동의 경우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의 관계는 공감에 의해 매개되었다. 특히 공감의 여러 측면 중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관점 수용과 정서적 요소에 해당하는 정서적 공명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공감적 관심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죄책감에 작용하는 공감의 여러 측면을 다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죄책감의 다양한 측면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념정의와 척도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제행동에 대한 죄책감까지 확장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측정방법을 고안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죄책감을 지각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면 죄책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 경향성이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두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소수인 상황에서 전반적인 자아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이론적인 논리위에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검증하여, 두 변수의 영향관계의 방향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죄책감 경향성을 미리 측정하고, 실험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죄책감 반응을 관찰하여, 두 변인의 원인-결과관계를 실험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죄책감 경향성, 공감과 죄책감의 관계가 아동과 청소년의 죄

책감 및 공감 향상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공감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죄책감 경향성을, 건강한 죄책감 형성을 위해서는 공감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연, 하영희 (2003). 죄책감, 도덕적이탈, 및 친구의 규칙위반성향과 청소년의 규칙위반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39-52.
- 김경희 (2002).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 죄책감을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1), 35-55.
- 김성일 (1998).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의 공감 발달. *청소년학연구*, 5(1), 21-51.
- 서하나 (2008). 대학생의 수치심과 죄책감이 공감능력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수민 (2007).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비교: 심리적 특성과 상황적 변인에 따른 차이.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수민 (2009). 상황 변인에 따른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67-283.
- 신경일 (1994). 상담자 교육을 위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경아 (2009). 초등 도덕교육에서 아동들의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방안 연구: Martin L.

- Hoff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희 (2008). 도덕과 정의적 측면 중심 수업모형의 적용이 공감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희 (2001). 청소년의 도덕행동에 관한 관련 변인 연구: 권장행동과 금지행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세영 (2007). 초기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7), 17-3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hart, A. C., & Greenberg, L. S. (1997). *Empathy reconsidered: New directions in psycho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ybee, J., & Quiles, Z. N. (1998). Guilt and mental health. In J. Bybee (Ed.), *Guilt and children*(pp.269-291). San Diego: Academic Press.
- Cornell, A. H., & Frick, P. J. (2007).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styl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parent-reported guilt and empathy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3), 305-318.
- Eisenberg, N., Zhou, Q., & Koller, S. (2001). Brazilian adolescents' prosocial moral judgment and behavior: Relations to sympathy, perspective taking, gender-role orientation,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72(2), 518-534.
- Ferfuson, T. J. & Eyre, H. L. (2000). Engendering gender differences in shame and guilt: Stereotypes, socialization, and situational pressures. In A. Fisher (Ed.), *Gender and emotion: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pp.254-27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rguson, T. J., Stegge, J., Eyre, H. L., Vollmer, R. & Ashbaker, M. (2000). Context effects and the (mal)adaptive nature of guilt and shame in children. *Genetic,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6, 319-348.
- Feshbach, M. D., & Feshbach, S. (1982). Empathy training and regulation of aggression. *Academic Psychology Bulletin*, 4, 399-413.
- Fossum, M. A., & Mason, M. J. (1986). *Facing shame: Families in recovery*. New York: Norton.
- Fraser, S., & Strayer, J. (1997). Guilt and Shame in Middle Childhood: Relationships with Empathic Responsivenes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2nd, Washington, DC, April 3-6), 12 pp.
- Hoffman, M. (1975). Sex differences in moral internalis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720-729.
- Hoffman, M. (1998). Varieties of empathy-based guilt. In J. Bybee (Ed.), *Guilt and children* (pp.91-112). San Diego: Academic Press.

- Hoffman, M.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de, J. S. (2005). The gender similarities hypothesis. *American Psychologist*, 60, 581-592.
- Leith, K, & Baumeister, R. F. (1998). Empathy, Shame, guilt, and narratives of interpersonal conflicts: Guilt-prone people are better at perspective talking. *Journal of Personality*. 66(1), 1-37.
- Lewis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utwak, N., Panish, J. B., Ferrari, J. R., Razzino, B. E. (2001). Shame and guilt and their relationship to positive expectations and anger expressiveness. *Adolescence*, 36(144). 641-653.
- Silfver, M., & Helkama, K. (2007). Empathy, guilt, and gender: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guilt.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8(3), 239-246.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ress.
- Tangney, J. P. (1995). Recent advances in the empirical study of shame and guilt. *Journal of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8, 1132-1145.
- Tangney, J. P. (1998). How does guilt differ from shame? In J Bybee (Ed), *Guilt and children*(pp.1-17). San Diego: Academic Press.
- 1 차원고접수 : 2009. 08. 17.
수정원고접수 : 2009. 09. 02.
최종게재결정 : 2009. 09. 04.

Guilt-proneness, Empathy, and Guilt According to Gender and Age

Han, Sae-Young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guilt-proneness, guilt, and empathy across both gender and age,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guilt-proneness and guilt,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uilt-proneness and guil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59 children and early adolescents (187 boys, and 172 girls) in Daejeon cit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d that girls showed higher scores of guilt, perspective-taking, sympathetic interest and emotional resonance than boys, and children reported higher levels of guilt and emotional resonance than adolescents. Regardless of gender or age, the participants showed higher scores of guilt compared to guilt-proneness. The mediating effects of perspective-taking and emotional resonance have been prov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uilt-proneness and guilt, but only among girls and children.

Key words : *guilt-proneness, empathy, guilt*